

사랑티켓 참가작
극단 액터스 제 23회 정기공연

내가 제과귀였을 때

고연옥 작
손병태 연출



을숙도문화회관 소공연장
2012년 10월24일(수) - 27일(토)
평일, 20시 토요일 17시

문의 전화 : 010-9126-83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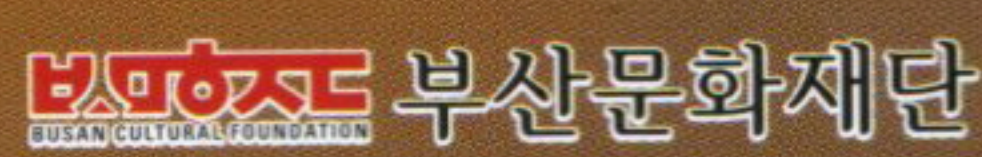
후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부산광역시
BUSAN METROPOLITAN CITY



부산문화재단

〈본 공연은 2012년 부산문화재단 무대지원금 일부를 지원받아 공연됩니다.〉



연출
손 병 태

부산예술대학교 연극과 교수
연출가

울긋불긋 물들었던 단풍이 조금이라도 더 자태를 뽐내기 위해 간신히 가지에 달려 있는 모습을 바라보니 벌써 겨울을 맞이해야 될 것 같습니다. 떨어져 버린 단풍은 겨울이 지난 후 어김없이 내년엔 다시 그 아름다움을 과시하리라 믿습니다.

13년 전 버려진, 아니 혼자 남겨진 아이는 철저히 자기의 용망을 죽이며 방황을 하다 부모에 의해 그렇게 그리워했던 집으로 돌아오면서 극은 시작됩니다. 잠깐의 안식 후에 감추어야만 했던 과거의 비참했던 기억들이 아이를 통해 가족 구성원들의 가슴가슴마다 비수처럼 찔리며 들춰집니다. <내가 까마귀였을 때>는 현대인들의 존재 속에 숨겨진 과거의 고독과 불신, 고통의 그림자들과 화해하여 희망으로 가는 길로 인도하는 방법을 제시하는 극입니다. 코믹과 가벼움의 언어 등으로 점철된 요즈음의 극계에서 인생을 다시금 생각해 볼 수 있는 보기 드문 극적 언어와 내면의 연기가 잘 어우러진 수작입니다.

모처럼 좋은 작품으로 함께 2-3개월을 작품과 씨름했던 영원한 연극동지 호민兄과 구민주씨 그리고 참여한 모든 배우들과 스태프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사랑하는 딸을 멀리 시집보내 듯 귀한 작품을 기꺼이 연출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고연옥 선생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척박한 현대 사회에서 가정의 소중함을 다시 일깨우는 연극, <내가 까마귀였을 때>에 함께 하시는 관객 여러분들께 사랑의 마음을 전합니다.

사랑하며 가정의 행복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이해합니다!

내 그림자와 사는 법

〈내가 까마귀였을 때〉는 2010년 12월부터 2011년 2월까지 쓴 작품입니다. 돌이켜보면 겨우내 외출도 별로 하지 않고, 오직 이 작품만을 붙들고 살았습니다. 요즘도 글을 쓰면서 힘들 때가 있는데, 그래도 그때보다는 낫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이 작품을 쓰는 일은 고통스러웠습니다. 그것은 아마도 저의 그림자 혹은 죄의식과 화해하는 일이어서 일겁니다. 극중 아이의 별명인 ‘까마귀’는 우리가 감추려고 애쓰는 어두운 그림자를 의미합니다. 과거에 사로잡혀 사는 것도 좋은 일은 아니지만, 우리는 마치 과거가 없는 사람처럼 사는 것에 익숙한 것 같습니다. 그것은 다가오는 미래조차 과거로 만들 위험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안의 어두운 그림자는 부끄럽거나 두려운 것이기도 하지만, 바로 내 자신이라고 여길 수 있는 것도 담겨 있습니다. 더 늦기 전에 내 자신과 화해하며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한다는 생각으로 이 작품을 쓰게 되었습니다. 2011년 봄, 서울 산울림 극장에서 임영웅 선생님 연출로 공연되었는데, 마지막 날 극장에서 있었던 뒷풀이는 평소와 많이 달랐습니다. 배우, 스태프는 물론 평소에는 그토록 점잖으셨던 많은 분들이 마치 어린아이같은 모습으로 노래를 부르고, 춤도 추면서 이 연극을 떠나보냈습니다. 이번에 제 고향과도 같은 부산에서 손병태 선생님을 통해 공연하게 되어 정말 기쁩니다. 그 곳에 계신 많은 사랑하는 분들에게 멀리서나마 안부를 전합니다.



작가
고 연 옥

대표작

〈꿈이라면 좋았겠지〉, 〈인류 최초의 키스〉, 〈웃어라 무덤아〉, 〈일주일〉, 〈백중사 이야기〉, 〈발자국 안에서〉, 〈달이 물로 걸어오듯〉, 〈오늘 손님 오신다〉, 〈엄마를 부탁해〉, 〈내 심장을 찌라〉, 〈내가 까마귀였을 때〉, 〈주인이 오셨다〉, 〈지하생활자들〉 외

수 상

2011 대한민국 연극대상 희곡상 〈주인이 오셨다〉
2011 올해의 연극 베스트 7 〈주인이 오셨다〉
2008 샛포로 연극제 특별상 〈발자국 안에서〉
2007 서울연극제 대상, 희곡상 〈발자국 안에서〉
2004 올해의 예술상 연극부문 우수상 〈웃어라 무덤아〉
2003 대산창작기금 희곡부문
2001 올해의 연극 베스트3, 올해의 우수희곡 선정 〈인류 최초의 키스〉
1996 부산일보 신춘문예 희곡부문 당선

作意

우리는 과거와 화해할 수 있을까.

과거는 현재의 그림자로 엄연히 존재하고 그 속에는 또 다른 내가 있다.

현대인, 그리고 현대사회는 과거와 단절된 것처럼 보이지만, 과거 어느 때보다도 깊은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다. 우리는 그림자를 감추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지만, 때론 그 속에서 현재의 삶보다 더 많은 가치와 희망을 목격하기도 한다.

한 사람에게, 한 가정에게, 한 사회에서도 그림자는 존재한다. 우리는 그림자에게 잠식되지 않기 위해 노력하면서도 그 속에 숨겨진 진정한 자신을 회복하기 위해서 고통을 감내해야만 한다. 이 이야기는 13년 만에 잃어버린 아이를 찾은 한 가족의 고통과 희망에 대한 것으로, '까마귀'는 그 가족에게 늘 드리워졌던 '그림자'이다.

우리는 잃어버린 가족을 기다리는 심정으로 그림자와 만나야 하고, 세상의 모든 고통과 슬픔은 이어져 있다는 깨달음으로 화해해야 한다. 우리는 홀로 존재할 수 없다.

작품줄거리

1. 한 가족이 13년 만에 잃어버린 막내아이를 찾아 데려오면서 이야기는 시작된다. 5살 아이를 잃어버린 정황은 아주 사소한 실수에서 비롯된 사건이었다.
아이는 철저히 자기 욕망을 죽이며 살아왔고, 한때 '까마귀'로 불렸다. 먹을 것만 보면 흠치는 버릇 때문이었다. 처벌이 불가피하여 경찰서에서 신원조회를 하다가 부모에게 연락이 된 것이다.
곧, 아이의 친근한 태도로 인해 집안은 생동감이 넘치고, 이제야 비로소 완벽한 가족으로 만났다는 행복감을 느낀다.
하지만, 13년간 아이가 몸담았던 세계. 그곳은 철저히 이 세계의 바깥이었다. 아이는 비참했던 자신의 과거를 무기삼아, 가족들의 죄의식을 건들이며, 점점 그 집의 주인으로 자리 잡는다.
2. 누나와 형은 13년간 전혀 다른 길을 걸었다.
누나는 언젠가 자기 힘으로 아이를 찾을 수 있는 사람이 되고자 우리나라 최고 학부의 법학과 학생이 되었다. 형은 아이와 의식적으로 함께 있다고 느끼고자 학업을 포기하고, 낯선 곳으로 여행을 다녔다.
아이가 돌아왔을 때, 형은 아이와 늘 함께 했고, 누나는 집에서 아이를 기다렸다. 하지만, 아이가 두 사람을 향해 자기의 몫을 빼앗아 간 장본인이라며 강한 적의를 드러낼 때, 형은 세상에서 가장 만만한 형이 되고자 하는 꿈을 포기한다. 그리고 누나는 무의식 속에 남아있던 한 장면을 떠올린다.
그것은 아주 더럽고, 작은 방에서 어린 남매가 굶주리며 엄마를 기다리는 모습이었다.
3. 아이가 길에서 만난 남자와 여자를 집으로 데리고 온다. 그들은 오래 전부터 아이와 가족처럼 지내온 사이라고 자신들을 소개하며 친분을 과시한다. 아이는 더 과감하고, 노골적으로 이 집의 주인처럼 행동하며, 자기가 몸담았던 저 바깥 세계의 삶을 드러낸다. 아이는 가족들에게 차라리 자기를 포기할 것을 강요한다. 하지만, 고통 속에서 아이를 포기할 수 없는 이유가 있다. 가족들은 서서히 그 진실을 대면하기 시작한다.
4. 13년 전 아이는 버려졌다.
그리고 두 아이는 더럽고 좁은 방에서 굶주림에 지쳐 죽어가고 있었다. 그 가족은 이미 세계의 바깥에 거하고 있었던 것이다.
세월이 흘러 그들은 불행했던 과거의 그림자를 감추며 살고자 했지만, 삶의 極限속에서 다시 희망을 붙잡았던 순간 역시 그 속에 있었다.
가족들은 한 번도 말은 하지 못했지만, 자기의 삶이 아이를 향해 있다고 느끼고 있었다. 이제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기 시작한다. 아이는 자기를 까마귀라고 말한다. 늘 어두웠던 까마귀, 슬픔을 물어다 버리고 돌아오는 까마귀.



아빠 호민



엄마 구민주



아이 신현규



형 박규남



누나 김희진



남자 엄태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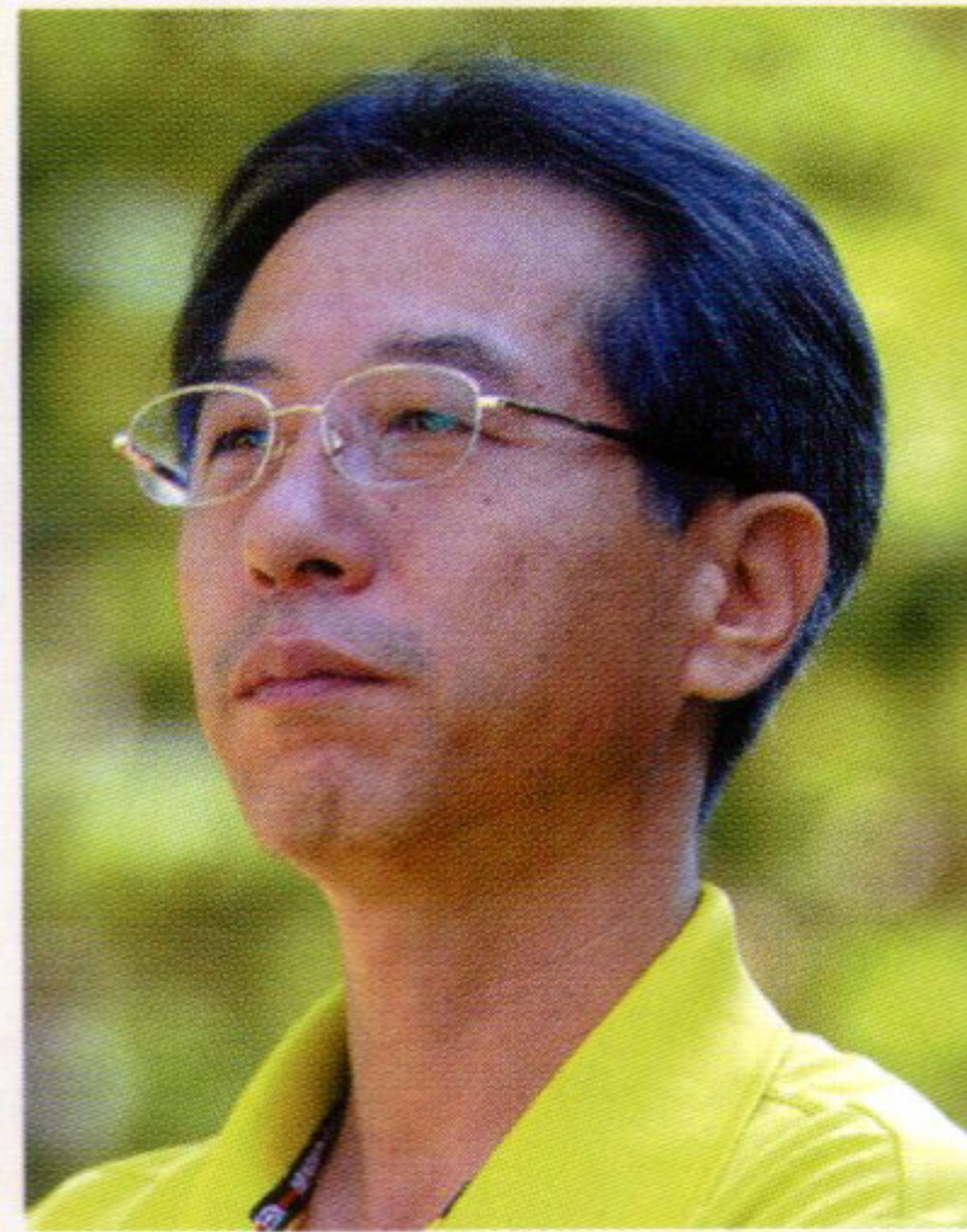
여자 장나운



연출 **손병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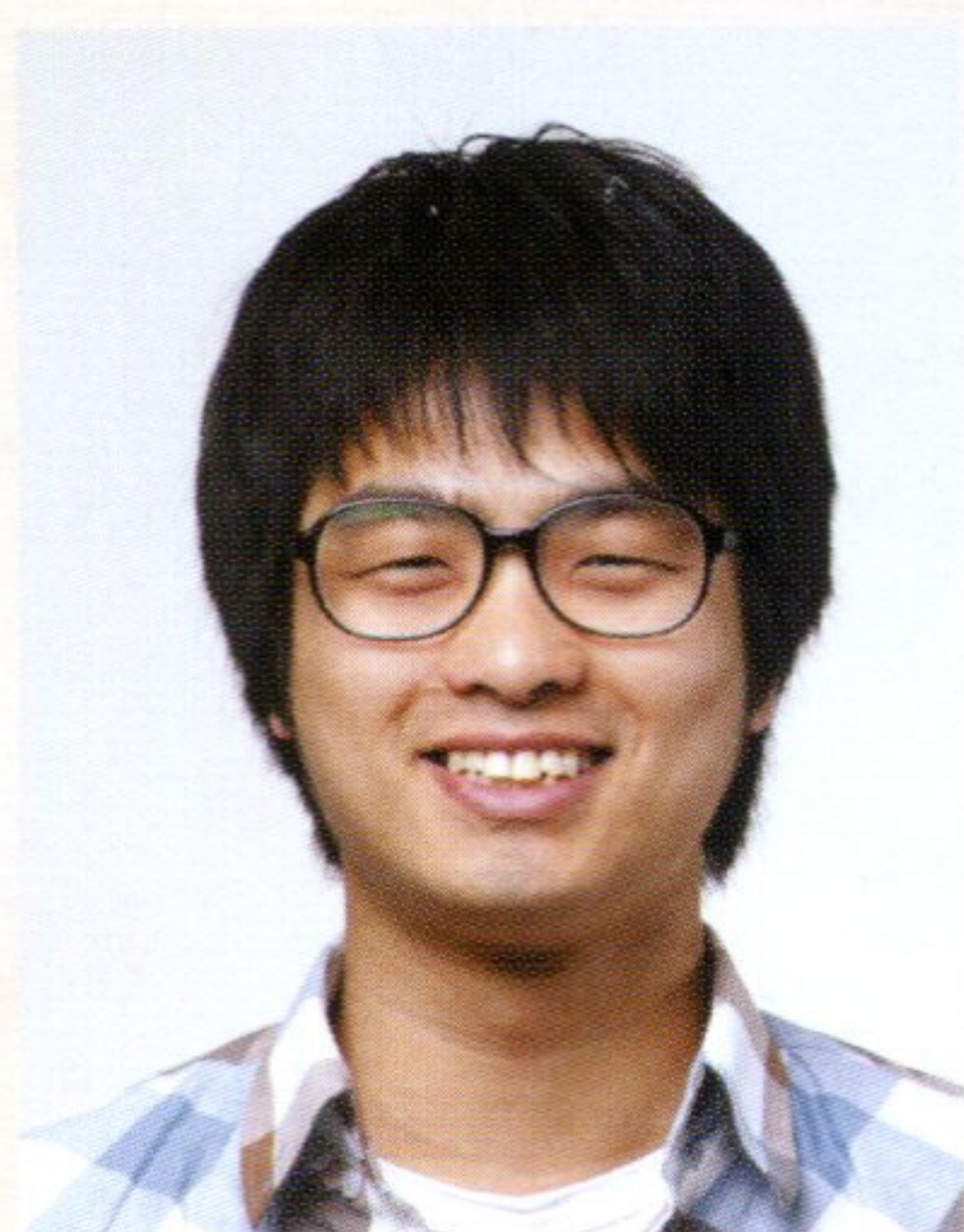
작가 **고연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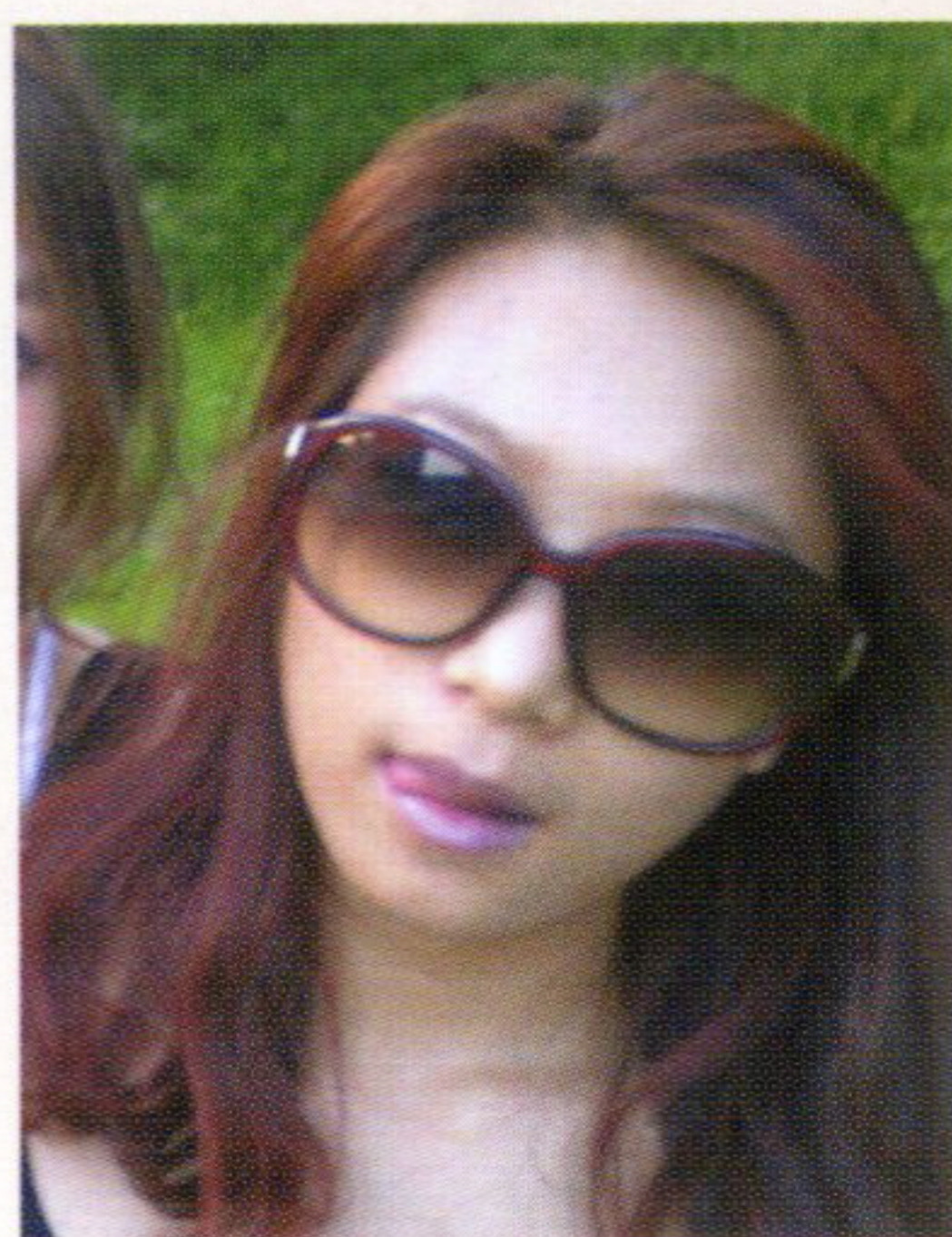
무대연출 **이종근**



무대디자인 **김부성**



조명디자인 **최용혁**



음향op **한아름**



조명op **류현지**

조연출 **전형준**

무대제작 **박준연**

소품 **최진숙**

진행 **김채운**